

1세대 프로그래머들의 노래소리

조 이 남

(금융결제원 상무이사)

1970년 10월 1일은 금융기관 공동센터인 금융기관 전자계산본부(Korea Banks Computer Center ; KBCC)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최초로 가동되기 시작한 날이다. 원래는 한국상업은행에서 독자적으로 설치하려고 계획했던 컴퓨터를 은행이 공동으로 이용한다면 빠른 시간내에 여러은행이 전산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데 착안하여 공동센터용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때 설치되었던 기종은 유니백 9400시스템으로 32KB의 메모리와 자기테이프장치 4대, 720만바이트용량을 가진 디스크 장치 2대, 550LPM프린터 1대, 600CPM카드리더 1대가 시스템의 전부였다. 프로그램작성에 사용하였던 언어는 어셈블리어와 COBOL, FORTRAN 등이었는데 32KB의 메모리로 COBOL언어가 작동되지 않아 긴급히 추가로 메모리를 들여와 64KB의 메모리 상태에서 COBOL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었다. 입력도 80칼럼카드만 사용하

였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들은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담긴 카드박스를 신주 모시듯 들고다녀야 했다. 어쩌다 프로그램박스가 마루바닥에 떨어지기라도하면 순서가 뒤바뀌어 카드의 순서를 맞추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했고,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데이터처리까지에도 어셈블(또는 컴파일)이 끝나서 문법적인 에러가 없어야 하고 링크과정이 끝나 실행상태가 되어야만 데이터가 입력되므로 프로그램카드를 카드 리더에 입력시켜 데이터처리가 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 간격이 필요하였다.

그런데 KBCC에서는 여러 은행직원이 1대의 컴퓨터를 사용하므로 은행원들 사이에는 배정받은 시간이 지나면 앞시간대 처리하던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다음차례의 직원이 사용한다는 엄격한 룰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데이터처리가 불과 몇분만 지나면 완료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그 다음 배정받은 대기조가 양해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하곤 하였다. 성품이 좋은 대기조 프로그래머를 만나면 양해를 받고 1싸이클 프로그램을 처리시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룰에 의하여 처리를 중단시켜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은행프로그래머들 사이에는 컴퓨터를 둘러싸고 시간양보라는 협조체제를 가져야만 원만한 업무처리가 가능하였고 그로말미암아 우정의 끈

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또 프로그램의 내용면에서도 은행업무의 복잡도에 비례하여 논리구성도 매우 복잡하여 테스트 데이터 1매를 들고 프로그램로직을 따라가다보면 미로를 찾아가는 몰모트와 같이 되어 지쳐버리기 보통이며 팔자타령을 하는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선배프로그래머가 후배들에게 할 말이 많아지고 도제제도가 성립하게되어 선배로서의 경험이 후배들에게 절대적이기도 하였다. 그때 그시절 명동 1가 4번지에 위치한 KBCC에서 카드박스를 들고 다니던 프로그래머가 이제는 정년이 임박한 관리자가 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때 어떤 분들은 프린터 공포증에 시달린 분들도 많았다.

프로그램이 완성되기까지는 어셈블과 링크과정이 끝나야 하는데, 링크과정이 끝나고 데이터처리가 시작되기전에 프린터에서 「주루룩, 주루룩」 계속되는 소리가 나면 데이터 런이 잘되는 상태이고 「주루룩, 탁, 탁」 소리가 나면 프로그램에 에러가 있다는 상태이며 그 소리후에 디버깅용 메모리덤프가 쏟아지는 소리는 마치 소나기 소리와의 같이 연속된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게 보통이다. 컴퓨터실 밖에서 만난 S씨에게 “왜 밖에 나와 계세요?”라는 인사말을 건내기라도 하면 “그놈의 프린터소리를 피해서 나와있죠.”라는 대답소리위에는 불안한 표정의 그림자가 덮고 있었다. 그렇게

만났던 우정들이 4반세기가 지난 요즘도 만나면 그때의 이야기가 추억으로 메아리쳐 온다. 우리나라 1세대 프로그래머들의 노래로.